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5.30원 하락한 1,183.5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달러 약세와 코스피 강세에 연동하며 전 거래일 대비 5.30원 하락한 1,183.5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전 거래일 대비 3.40원 내린 1,185.4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위험선호 분위기가 이어져 하락 출발하였으며 장 후반 독일 제조업 지표 호조와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 결정으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하여 1,183.5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84.3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21.84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5.40	1186.40	1183.00	1183.50	1184.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5.99	1125.99	1119.06	1121.42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7	-1.37	-2.9	-6.27
결제환율(수입)	0.14	0.18	-0.25	-1.4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1,18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

금일 환율은 미국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1,180원대 초중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3.50원) 대비 0.90원 상승한 1,184.2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118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142만 명)을 하회하였고 3주 만에 줄어든 모습으로 고용 우려를 완화하여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자산 랠리로 연결되었다.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늦은 회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여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져 환율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꾸준한 수입결제가 유입되고 있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앱스토어에서 제거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는 등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환율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1181.50 ~ 1187.25 원

예상 범위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38.47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0원 ↑
	■ 美 다우지수 : 27386.98, +185.46p(+0.6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246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